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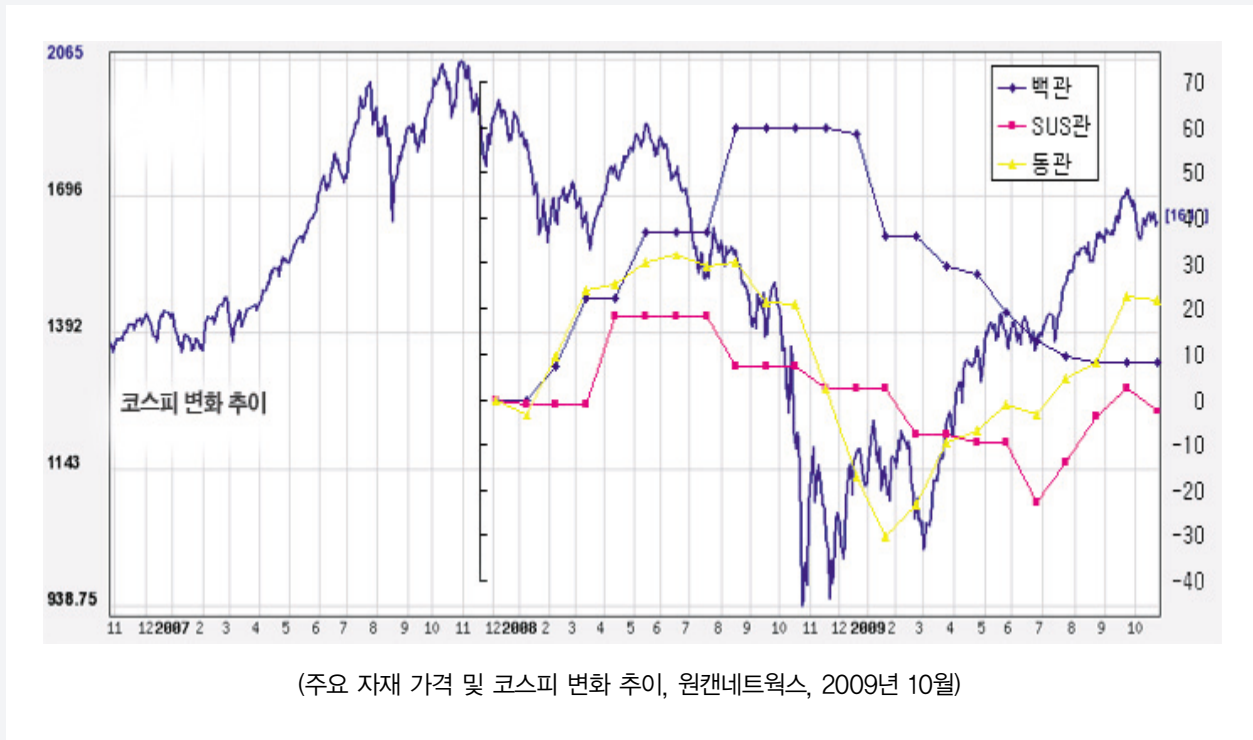
# 비 갠 뒤를 생각하며...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주요 국의 주가 지수가 금융 위기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기하고는 크게 거리가 있다. 하지만 환란이나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닥쳐 왔듯 기회도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 올 것이다. 다소 막연하고 시기상조인 듯 하지만 경기, 특히 우리 설비건설 업계에 언젠가 따뜻한 햇볕이 든다면 그 혜택을 누릴 준비가 됐는지 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건설업의 활황에는 반드시 자재 가격 폭등 및 품귀가 따라 오기 때문이다.

## 10~11월 자재 동향

자재 및 원자재 전반	- 10월에 들어서며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 - 올해 최고 가격 경신을 지속했던 전기동 가격이 주춤하며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동관 및 연관제품	- 예년과 같이 9월까지 큰 폭으로 치솟던 동관 가격은 10월 들어 소폭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으며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예상됨
STS 관련 제품	- STS관은 9월에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고 10월에 소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으며, 대리점들의 과다한 물량 확보로 인한 단가 하락 요인이 있어 당분간 단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임
PVC 관련제품	- 올해 각 제조사의 KS형식승인 취소와 새로운 KS형식의 고시로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임. 10월부터 소재의 변화로 가격상승의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각 건설사나 현장의 관계 부처의 방침이 아직 정확히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혼란 가중 - 기존 진행중인 현장의 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함 - 11월부터 제조사들의 단가 인상 요인이 있으나 제조사들이 정확한 인상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강관자재	-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예상했던 대로 10월 들어 큰 폭의 가격인상이 있었음(백관 11.7%, 흑관 7%) - 제조사들의 강력한 단가 정책에 따라 일부 대리점들 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
구매전략	- 단기 품귀 물량의 경우 물량 확보를 위해 선 구매를 하는 것이 유리함 - 장기 물량의 경우 하락 전망이 우세하므로 가격 추이와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유리함



위 그래프는 2006년 11월 이후 종합주가지수의 추이와 2007년 12월 이후 주요 설비자재 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설비 자재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이프류는 2~3개월 차이를 두고 코스피를 후행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더블딥(W자 형의 이중 침체)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기를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설비건설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주요 자재의 시장 가격이 지난 해에 보여 주었던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자재 담당자들과 경영진은 코스피 및 주요 자재의 가격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가며 적절한 장기 전략을 수립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칸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